

# 칭기즈칸 · 중국 초원문화대전

글·구성 : 권영옥

## 전시개요

장소 : 서울 COEX 1층 특별전시관  
기간 : 2003. 12. 2 ~ 2004. 2. 12  
주최 : (주)EQ엔터테인먼트, COEX  
후원 : 문화관광부, 중국문화원 등

드넓은 유라시아대륙을 민족도 종교도 국경도 없는 「하나의 세계」를 꿈꿨던 위대한 정복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등은 지난 1천년의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칭기즈칸을 선정하였다. 이는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이르는 인류 최대의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의 업적에 역사적 의미를 둔 것이다.

현재 COEX 1층 특별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칭기즈칸 · 중국초원문화대전〉은 '위대한 정복자' 칭기즈칸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한·중 수교 11주년을 맞아 국내에선 어렵게 느껴졌던 중국 북방민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전부터 기획·전시되어온 뜻깊은 전시회다.

중국의 내몽고박물관(內蒙古博物館)과 한국의 EQ엔터테인먼트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국보급 유물 65점을 포함해 총 182점의 유물들이 전시된다. 특히, 공개유물 182점 모두 진품으로서 칭기즈칸과 초원문화의 진수를 만날 수 있다.

전시기획단 김남윤 단장은 "이 칭기즈칸 유물전은 전시되는 유물갯수만으로도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전시회 규모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칭기즈칸의 세력이 강했던 시대를 중심으로 전후 시대 유목민의 생활 모습 변화를 쉽게 알 수 있게 전시장을 구성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체험전시관으로 칭기즈칸의 정복사를 담은 길이 36m의 대형 전쟁도를 비롯한 칭기즈칸의 전차, 폭석기 등 당시의 군사장비가 함께 전시된다.

## 중국 북방유목민족의 흥망성쇠

유목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온 것은 바로 중국 북방유목민족이다.

동호, 흉노, 선비, 돌궐, 몽고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 북방유목민족은 하상(夏商)시대부터 명(明)·청(淸)에 이르기까지 중국 북부초원지대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흥망성쇠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내몽고(內蒙古)일대는 중국 북방민족의 고향이자 삶의 터전으로서 그들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사와 세계사에 의미 있는 페이지를 장식하였다.

13세기 몽고족을 중심으로 한 칭기즈칸시대에서 그들은 북방초원문화의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이는 수천년 동안 축적된 유목문화의 내재적 에너지를 대외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유목문화 고유의 강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보여줌으로써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역사의 한 장이 되었다.

### 칸의 등장과 문화의 전성기

13세기는 '칭기즈칸의 시대'라고 한다. 그 의미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그의 손을 통해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정복했던 영토만 해도 알렉산더의 22배, 나폴레옹의 6.7배, 로마제국의 4배에 달하니 그의 정복활동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걸쳐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수십 민족, 수천만 명을 수백 킬로씩을 달려가며 세계를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의 업적에 비해 그에 관한 기록은 일반인에게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 오히려 수많은 정복활동을 통해 알려진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들 - 전쟁, 학살, 약탈, 부도덕성 등이 잔존해 있다. 그러나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제국의 제왕으로서 군림하던 그가 '1천년 인류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의 하나'이자 '성공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였음을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 전해져 오는 유물로는 그가 서유럽을 정복할 당시 셋째 딸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감국공주동인'과 각 신체부위별 13개로 구성된 '동제갑옷', 몽골 천왕이 쓰던 '홍보석정왕공털모자', 유목군사들이 장거리 이동시 사용했던 '대미식류금양법랑마안구' 등이다.

그 외에도 흉노귀족의 화려한 복식취향을 엿볼 수 있는 '조수문금식왕복', 거란족의 주요 장례도구 중 하나인 '동도금가면' 등 칭기즈칸 전후시대의 초원문화를 한 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대거 공개된다.

### 전시회 주요 작품

경교자묘지(46.5396cm/元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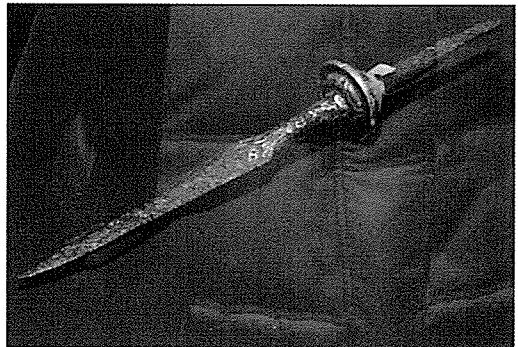


묘자리 상단에 십자가가, 그리고 그 아래에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기독교가 전도해 가는 과정에서 몽고문화와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마갈문도금은접시(높이 2cm, 지름 48cm/唐代)

쟁반 중앙에 인도의 신화에 나오는 듯한 물고기 모양의 두 마리 숫염소가 새겨져 있다. 이 유물은 매우 크고 정교하여 당대 金銀器 중에서도 제작기술이 뛰어나다.

은상감철창(길이39cm/ 遼代)



철창의 날이 곧고 창 의 날과 등 사이가 볼록하게 각이 져 있다. 철창은 거란족의 군인정신과 고도의 주조 기술을 보여준다.

대미식류금양법랑마안구(854332cm/清代)

목재안장, 안장 전체에 모두 남색 바탕에 모란꽃 문양의 범랑 은장식이 있다.